

보시 특집
불기 2522년

보시 의 삶으로 행복해요

■이태화 민다무역 대표·한울촌 총장

“재물은 유익한 곳에 써야”

“뭘 버리고 하는 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등 달고 기왓장에 이를 쓰면 업장소멸 됩니까? 조건이 붙는 ‘보시’는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전문가(?) 이태화 (주)민다무역 대표(54)가 설파하는 보시의 의미다.

민다무역 회의실에서 만난 이 대표는 정열적인 카리스마가 넘쳐났다. “부처님 제자로서 보시는 곧 보살행이기에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그의 보시철학이다.

“보시도 처음 마음냈을 때 행동에 옮겨야합니다. 생각을 오래하면 욕심이 자라나서 보살심을 녹여버립니다. 항상 ‘공수래 공수거’를 떠올리죠.”

재력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불행주야 돈 벌이에 골몰한다. 요즘 이태화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에 눈을 돌렸다. 중산층을 겨냥한 실버타운을 짓고 그 수익을 돌려 서민을 위한 무료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그의 목표다. 한 때 월인 스님(인일사 주지)을 은사로 출가생활을 하기도 했던 이 대표의 범명은 정목(定默), 호는 무난(無難)이다. 그의 호를 딴 무난장학회도 운영한다.

고3 말이던 1972년 10월경 불교서적에 심취해 출가를 결심

무료급식·장학금 등 보시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실천 노력

했다. 양산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받고 범어사·통도사 강원에서 공부했다. 봉암사에서 두 철 안거에 들어가기도 했다.

군 제대 후 절로 돌아가지 않고 경남대 무역학과에 진학해 수출기업에 입사했다. 1991년 피혁의류수출업체인 (주)민다무역을 창업했다. 첫 해 90만불의 수입을 올린 이래 수출에 박차를 가해 수출 1500만불을 달성했다. 그 공로로 2007년 3월 상공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남보다 사회진출이 늦어 주말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던 그가 보시에 눈을 돌린 계기는 IMF를 겪으면서, 이 대표는 “첫 사육을 샀던 1998년, 넘쳐나는 실직자와 불우이웃을 보며 ‘기업하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한다. 인근 면남초등학교에 결식아동 6명을 지원한 것이 보시행의 첫걸음이었다. 직원들과 함께 면북7동에 있던 사육 옥상에서 매주 토요일 점심 무료급식도 시작했다. 50여명 모이던 무료급식은 사육을 군자동으로 옮긴 지금 까지 10년이 넘도록 이어져 매주 200~300명이 찾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외에도 모교인 경남대에 매년 4명 장학금 지급, 장안초등학교 결식아동 6명 지원, 광진노인복지관·자양복지관 광진푸드마켓·인덕원·군자동 거주 차상위빈곤계층 지원, 한국노인의 전화 및 연화원 후원, 광진구청 불자회 후원 등 끝없이 보시행을 이어가고 있다. 2006년 결산해보니 이런 식으로 사회에 환원한 돈이 1억6300만원에 달했다.

이 대표의 명함에는 (주)민다무역 대표 외에 한울촌 총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있다. “2001년 한울촌 법인을 설립한 후 시작한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이 난관에 부딪쳐 아이디어도 필요했고 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기술을 배울 생각이었기 때문에 2002년 한림대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이 대표는 “그곳에서 원우 2명이 노인전문요양시설 너싱홈(nursing home)을 제안해 서울광진구 능동에 2004년 10월, 10억원을 들여 한울촌 너싱홈을 개원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너싱홈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형태여서 보건복지부에서 두세 차례 한울촌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현재의 사육도 리모델링을 거쳐 너싱홈으로 꾸밀 계획이다.

2003년 불교복지이론을 배우고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커리큘럼을 대해보니 불교사회복지 이론이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교학부장 김호성 교수와 일본불교대 사회복지학부 박광준 교수를 만나 불교사회복지 이론 정립의 시급함을 토론했다. 마음이 통한 이들은 의기



투합해 발원했다. 불교사회복지 개론서를 만들어보자고.

2007년 1월 이들의 ‘결사’는 이루어졌고, 이 대표는 박광준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 첫 결실이 올 2월 13일 열린 ‘불교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심포지엄으로 나타났다. 내년 2월경 2차 심포지엄을 거쳐 내년 말 <불교사회복지 개론>이 발간된다. “각 사찰마다 특히 교구본사와 A급 사찰은 복지시설을 하나 이상 자체 운영해야한다”는 이 대표는 “시웃돈을 회향하는 방법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회에 환원하는 최고의 지혜이자 인재들이 일할 터전을 공급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한다. 이태화 대표에게 왜 보시를 하냐고 물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상구보리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저라고 깨달음에 대한 욕심 없었어. 다만 지금 처지에 수행에 전념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상구보리는 뒤로 미루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하화중생으로 눈을 돌린 것이지요. 재물은 잠시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니 가지고 있는 동안 잘 관리해 유익하게 써야합니다.”

그리고 덧붙인다. “후진 양성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국불교가 행복해진다”고.

강지연 기자



■윤성희 조계사 문화센터 요가강사

“계율은 행복한 삶의 열쇠”

“저의 불자상은 지계바라밀을 통한 정념(正念)입니다. 마음 챙김 속에서 청정함에 머물고자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바로 본다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지계바라밀이란 청정 무결의 꽃을 가꾸며 살아가는 불자 정인(淨心) 윤성희(47) 보살과 함께 라일락 향기를 따라 안동별궁 돌담길을 걷는다. 도착한 곳은 찻집 문향락(聞香齋), ‘차 향기를 듣는 집’ 이란다. 그녀의 삶을 담은 따뜻한 오미자 차 한잔에 마음이 평안하다. 지계바라밀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바이의 이야기는 자못 향기롭다.

새벽5시, 고3 아들이 깨어나기 전 정인 보살은 거실에 마련된 불단에 청정수를 올린다. <천수경>에 이어 능엄주를 외고, 108배와 참회문을 열한다. 입시발원 기도문도 잊지 않는다. 보살의 마음이 집안에 가득 퍼진다. 모든 예불은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이뤄진다. 오직 그녀에게만 허락된 시간. 밤새 속이 비워진 상태에서 가뿐히 아침 요가를 한다.



‘마음 편히 머물고 쉬는 우리 집이 바로 법당이요. 가족이란 이름의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불자 가족의 상’이라 믿는 그녀이다. 청정수에 담긴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그날 아침 가족의 행복한 밥상이 된다.

정인 보살은 남편과 대학생 딸, 고3 아들과 함께 사는 주부다. 이 시대의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며느리이며 딸이다. 여기에 하나의 수식어가 더 붙는다. 그녀는 현재 조계사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시다. 이러한 그녀의 인생은 법명 ‘정인’을 통해 하나로 통류(通流)한다. 맑음(淨), 어질(仁), 남양주 봉인사 지산 스님께 받았다. 이미 상광월(常光月)이란 법명을 지녔던 그녀에게 정인이란 법명은 요가적 삶을 예고했다. 붓다의 지혜와 자비를 양 날개로 삼아 지계바라밀을 따르는 수행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정인 보살은 인생이라는 저마의 숲을 행복하게 가꿔가는 비결이 지계바라밀에 있다고 말한다. 아쉬탕가 요가(Astanga-Yoga)에서는 <요가수트라>를 여덟 단계로 구분한다. 그 중 1단계가 ‘야마(Yama)’라 부르는 금계(禁戒)다. 그 내용은 인류의 공통된 보편적 윤리로 탐욕과 욕망, 집착 등의 감정으로 인한 고통과 무지를 변화시켜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계 의 삶으로 행복해요

살아가게 하는 지침이다. 요가의 다섯 가지 금계란 ‘살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이다. 여기에 불교의 보살 계율인 ‘술을 마시지 말라’를 더한 총 여섯 가지 금계를 지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불살생(Ahimsa, 不殺生)은 비폭력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살아있는 어떤 것에든 고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내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불망어(Satya, 不妄語)는 정직이다. 바른 품성을 기르고 자기 자신과 남을 속이지 않는다. 친절한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팔정도(八正道)에 나오는 정어(正語)가 지향하는 부드러운 말을 한다. 불투도(Asteya, 不偷盜)는 내 것이 아닌 것에 탐을 내지 않는 것이다.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 과분한 찬사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부당하게 취하지 않는다.

불사음(Brahmacharya, 不邪淫)은 금욕이다. 완전한 금욕이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결하게 하려는 마음자세이다. 정상적인 관계 이외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예너지는 자연스럽게 수행으로 승화된다.

불살생 등 6가지 금계 실천 요가명상으로 心身정화 노력

불탐(Aparigraha, 不貪)은 무소유다. 반드시 필요한 것 이외의 소유물을 축적하지 않는다. 수행을 통해서 욕심이 사라지고, 점차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한다.

불음주(不飲酒)는 지혜이다. 욕식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수행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지혜는 연기를 환멸하는 과정의 보물지도와 같다.

정인 보살은 15년의 수행생활 속에서 기도의 처음과 끝에 “마음을 맑혀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변함없는 화두를 지니고 있다. 삶의 지점이 된 지계바라밀이 요가의 본질인 명상과 만난 것. 때문에 요가 명상은 불교의 사마타(止, Samatha) 그리고 위빠사나(觀, Vipassana)와 다르지 않다.

그녀는 단순히 요가 동작만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계율을 지니면서 요가의 본뜻을 실천한다. 마음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몸이기에 계율로써 마음을 무한히 확장시킨다. 자기의 중심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바에 충실해야 하는 해답이 지계바라밀 안에 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다면 지난 과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닌 지금 현재를 중요시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인 보살은 그러한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 힘이 바로 지계바라밀이라고 강조한다.

가연숙 기자



5월에 있는 木曜강좌

“선문찰요 (祖師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참선! 모르고 하면 어리석음만 짓습니다.

달마 祖師께서 “禪門”을 열어주는 길 “선문찰요”

그냥 날려져 있는 불교는 약처럼은 있으나

의사 없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쓰면 오히려 불교로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현대인들의 복잡한 생활은 스트레스로 묶여 있습니다.

禪은 우리 생활속에 있는 긴장을 풀게 합니다.

마음이 드러납니다... 밝아집니다.

묶여있는 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달마 스님께서 남기신... “혈맥론, 관심론, 사행론...”은

바로 그가 오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문찰요”는 서산, 경허스님 등 모든 종사가 의지했던

서책입니다.

서울 六祖寺 현웅스님께서 작강설 합니다.

■ 일 시 : 시작 - 08년 5월 22일 (음력 4월 18일)
회향 - 08년 9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교재 주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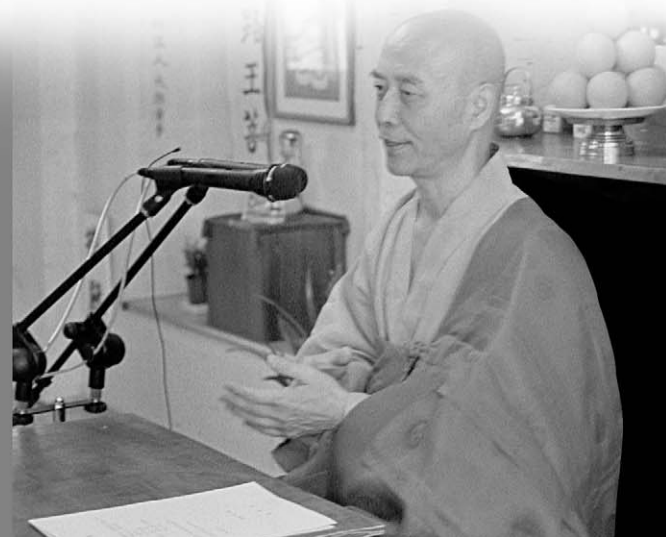
■ 동 참 비 : 4~5개월간 15만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6701-04-017439(예금주 육조사)

■ 육조사, Phone : 02)953-5291

* 참가 대상은 信心있는 사부대중, 出家者들은 다 入房할 수 있음.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잘 죽는 법과 사후세계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

죽음을 준비하는 법



수선제 역음 | 문화원 원저 | 328쪽 |
값 12,000원 | 문의전화 02)722-6653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아무말 없이 빙그레 웃고 있던
부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도,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가 죽으리라는 걸 알고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은 이 세상에 없네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목적 있게 사는 법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